



사라진 직업

왜 사라졌는지 어떤 직업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봅시다.

1. 물장수



물장수는 식수를 길러서 파는 직업이다. 예전에는 높은지대에는 수도가 공급되지않아 생활용수를 직접 물통에 담아와야 했기에 사람을 사서 물을 공급받았다. 그러나 수도관이 생기고 물을 마음껏 쓸 수 있게 되어서 결국 사라진 직업이다.

2. 엇장수



- 리어커에 엇을 들고 다니며 큰 가위로 엇을 쳐 깨어 조각내어 팔았다. 돈을 받기도 하고 고물을 받아 엇을 주었는데
예전에는 유통이 발달하지 않아서 엇을 엇장수가 와서 팔아야만 먹을수 있었지만 요즘은 유통이 발달해 가게나, 마트 등에서 얼마든지 먹을수 있으며, 엇을 대체할수 있는 사탕 과자 등 엇을 대신할 더 맛있는 많은 군것질 거리가 생겨 엇의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없어 졌습니다.

